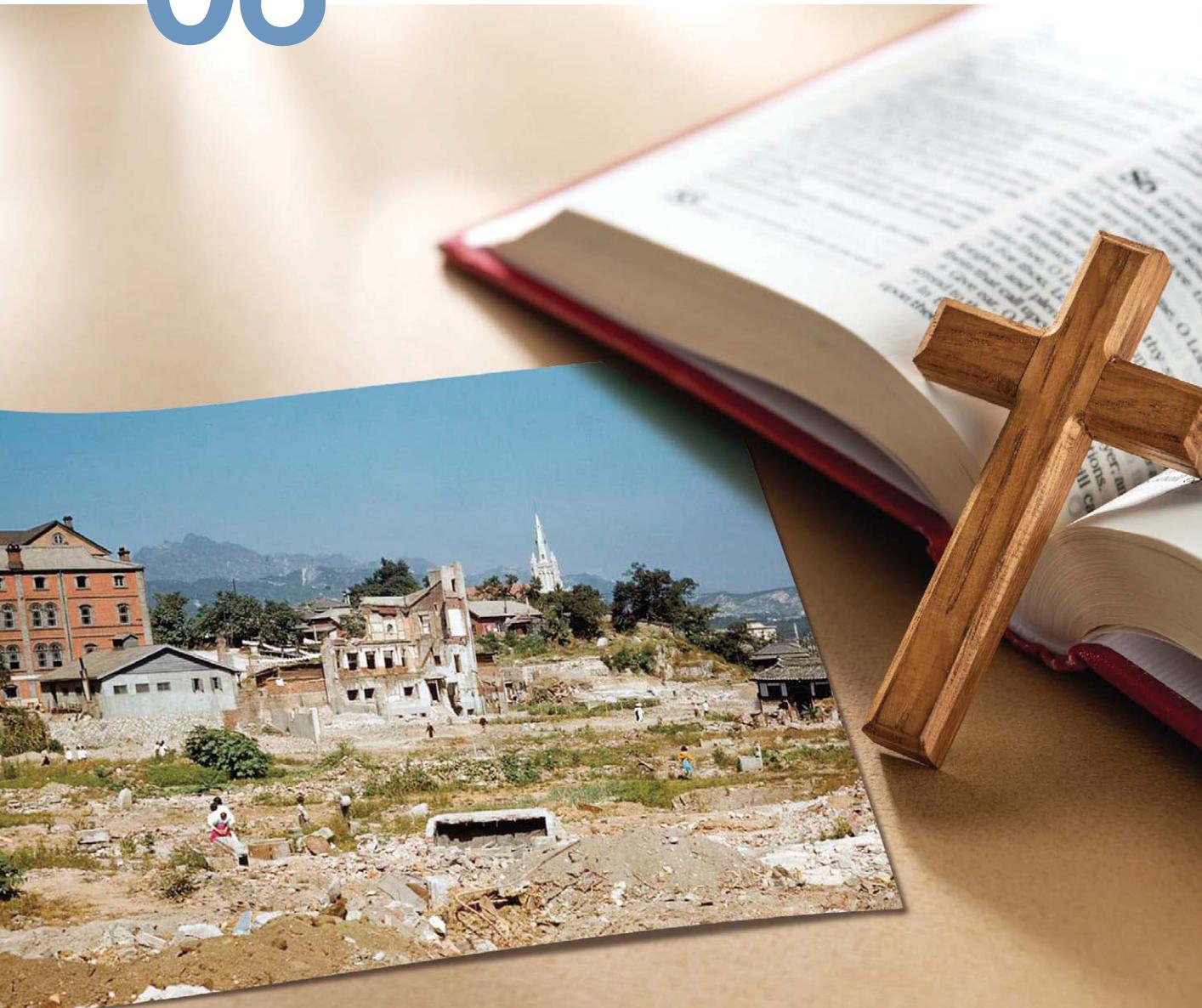


만남

06

2022
통권 580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전 세대가 함께한 예배…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가정이라는 꿈을 꾸라”는 주제로 5월 1일 어린이 주일, 5월 8일 어버이·가족 주일, 5월 15일 교육주일, 5월 22일 청년선교주일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5월 8일 어버이·가족주일은 2부~4부 예배 시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기도와 성경봉독을 교회 학교 어린이가 맡았다. 봉헌송은 노동옥 은퇴집사 가족(2부), 양성환 장로 가족(3부), 김혜숙 은퇴권사 가족(4부·위 사진)이 부모세대와 자녀와 함께하는 찬양으로 가족주일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하나님의 뜻에 따라(창세기 21:8~13)”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순종하여 자녀 이삭과 같이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며 축복받는 영락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신념에서 신앙으로 김운성

6·25 특집 **04** 6·25 이해와 기독교 양지청

08 영락교회와 함께해 온 군선교연합회 이정우

다음세대 **11** 형성의 교육-영락교회의 미래를 찾는다 백성우

땅끝까지 이르러 **14** 새로운 시대의 교회 선교 운동을 꿈꾸며 한철호
18 주님! 이곳에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황○○
21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행진합니다 안태운
22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 김진우

영락의 울타리 **24** 은혜의 기억 권영현
26 실정법 속에 살아있는 십계명 정우영
30 기도 속에 객관적 태도로 공감을 강승훈
33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수연
34 청빈·겸손·사랑을 배웠습니다 김의환
36 기도하고 행동하여 나라를 구하자 이성원
38 질병 조기 발견으로 사망위험 감소 오영택

문화광장 **40** ‘광야’ 리오로카 채플 이영한

44 오직 찬양 받으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조병준·김진수

47 평화의 기도 백정진

50 하나님과 동행 전제범

51 예수는 역사다 이영호

교회소식 **53** 교육주일 특별예배 외

59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 6월 목회력

표지설명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3년의 서울 중구 명동. 언덕너머 흔 고딕첨탑이 영락교회다. 미 공군기지에서 복무한 로버트 리 월워스 병장의 사진으로 전해진다.

신념에서 신앙으로

김운성 위임목사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3:16)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영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또 영적인 삶에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로빈슨 크루소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삶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파트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일방적으로 흐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 방식의 신앙은 곤란합니다.

우리 방식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얼마나 다를까요?

신념은 그 성격이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 왕국 유다의 말기에 백성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념이란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될 것이다”, “늘 평안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백성들이 갖지 못한 율법과 성전이 있었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었고,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므로 평안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

우리는 신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뚝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그들만의 신념이요, 일종의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느브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두 차례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평안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신념이 강해서 좋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용기를 가졌다고 비판해야 옳겠습니까?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5년 후부터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백성들이 평강한 것이 아니며,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평강에 대한 기대는 일방적 짹사랑일 뿐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급기야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폐허가 되어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칫 유다 백성과 같은 일방적 신념으로 흐를까 염려합니다. 강단에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외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잘 될 것이라는 평강의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리라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신념입니까? 더구나 다양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고, 지지하는 정당이 표를 많이 얻으면 무

조건 잘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정강(?) 정책이 우리를 무조건 평화로 인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 자신도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잘 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타락한 우리를 향해 아픈 채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김정은이 선제 핵 공격을 입에 담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25전쟁이 발생한 6월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신념에서 벗어나 살아 계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야 합니다. 막연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참 평화를 준비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날**

6·25 이해와 기독교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탱크를 앞세워 남한을 침략했다. UN이 참여하여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을 비롯한 남한은 미국의 원조로 또한 이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의 등장으로 세계에서 잘사는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영락교회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순교자도 있었다. 잊힌 전쟁에 대해 질문과 답으로 알아본다.

1. 6·25 한국전쟁

김일성은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사에서 이미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는 김일성이 인민의 선택과 무관하게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 북한 임시 인민 위원장으로 발탁된 시기부터 전쟁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는 증거다.

김일성은 지도자가 될만한 경력이나 식견이 없었음에도 스탈린에 의해 꼭두각시 지도자로 발탁된 콤플렉스 때문에 남한 적화 성공으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를 원했고, 부수상 박헌영도 북한에서 김일성의 식객에 지나지 않는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남침할 때 '20만 남로당원 봉기'를 호언장담하며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다고 믿은 남한 적화를 간절히 원했다.



양지청 장로
홍보출판부 부장
서초교구

2. 소련, 중국과의 결탁이 있었나?

6·25전쟁은 북한의 야욕으로 발발했으며, (구) 소련 스탈린과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의 지원을 약속받고 일으킨 남침이다. 소련공산당의 니키타 흐루쇼프 전(前) 서기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3.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수는 12만 9천 명

김일성은 6·25전쟁 중 남북한 지역에서 계획적인 숙청 및 학살 행위를 자행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빌간한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 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연구보고서: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북한 정권 및 인민군, 빨치산 등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2만8천936명에 달한다.

사실 기독교 인사들이 수없이 쳐형되었다. 구덩이를 파고 기독교인 목회자들을 살해 후 파묻었다는 증언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북한군과 좌익이 천 명이 넘는 목사, 기독인을 종전 직전에 무참히 살해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는 보도도 있다. 기독교는 자체적으로 교인 살해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

출처 : [특별기획]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 紙上 戰犯

재판 : 金 씨 3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 <월간조선> 2019년 6월호

4. 잊힌 국군포로 6만 명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국군포로 자녀들은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에 특히 분개한다. “국군 포로 자식으로 살아내느라고 수고했다고 잔등이라도 한번 쓸어주면 덧나나요” 최씨는 말했다. “김일성대를 졸업한 탈북민만 보면… 온 대한민국이 어쩔 줄 모르는데, 북한에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그 불쌍한 병사의 딸은 들여다도 안 본다는… 전쟁 일어나서, 포로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또 아오지 탄광 간다”

출처 : 「北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는 동안 국군포로 6만 명 노예노동 3대 세습!」 (조선일보 2016년 6월 27일자)

5. 국군포로 6만 명은 3대를 이어 북한에서 노예노동 하는 것이라는데

국군포로들은 강제로 결혼하고 그들의 자손은 북한 최하층으로 아오지 탄광 등에서 막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수천km 떨어진 나라의 인권은 이야기하며 북한의 인권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영화는 기획해도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기 힘들다고 한다.

6. 어떻게 UN군이 신속히 참전했나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세계정세에서 북한의 남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 받은 6월 25일 오전, 주한 미국대사 무초를 만나 이야기한다. “한국을 제2의 사라예보로 만드는 것을 피해왔으나 현재의



1950년 6월 영락교회 본당 입당예배를 드리자마자 6·25전쟁이 발발했다. 주변이 전부 파괴되고 홀로 서 있는 교회 모습
|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위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인지도 모른다.”

사라예보는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저격 살해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된 곳이다.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이 단순히 한 민족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므로 세계 자유 진영이 총반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북한의 남침이 이뤄진 시간, 미국은 6월 24일 토요일 밤이었다. 휴가지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격노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수를 써서 그들을 막아야 한다(We'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협받고, 세계 반공 전선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지시했다.



더글러스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지켜보고 있다



인천에 상륙하는 유엔군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UN은 신속히 움직였다. 6월 25일 유엔 안보리 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퇴각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에 불응하자 미국은 유엔의 서방 진영 국가들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참전했다. 미국은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했다. 6월 29일에는 맥아더 장군이 한강 남쪽 영등포에 와서 전선을 시찰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했다. 7월 초 유엔군을 지휘할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고, 맥아더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편, 대한민국을 돋기위해 파병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등 총 21개국이 6·25전쟁에 참전했고, 39개국이 물자지원 을 하는 등 총 60개국이 지원에 나섰다.

트루먼은 라디오·텔레비전 연설(1950.7.19)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작은 나라,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격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라고 말했다.

7. 피해 상황

6·25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보았다.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 기반 시설과 공장 등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물적 피해액은 당시 2년 치의 국민 총생산액에 달했다. 여기에 군인 전사·전상자, 실종자가 62만 명,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자가 99만여 명이었으며, 유엔군 사상자 실종자가 15만 명에 달했다. 수십만의 전쟁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했으며 가족이 헤어진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달했다. 미국 군인의 피해도 매우 커다.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방한하여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하는 사례는 무척 많다.

북한 공산 집단은 약 20만 명의 남한 젊은이들을 인민군으로 납치하여 사자로 몰아넣었고 농촌에서는 이미 완료된 농지개혁을 다시 했으나, 농민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이었다.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준 대가로 현물세를 징수했는데 경작지 1평당 작물의 포기 수, 포기 당 이삭 수, 이삭당 낱알 수를 계산하여, 이것들을 일일이 곱한 후

내야 할 평당 세금을 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집회를 열어 국민을 동원하고 소위 반동분자를 뽑아 즉결 인민재판으로 학살했다.

6·25전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0년 여름, 남한 주민은 공산 치하를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귀속 의식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

8. 한강 대교 폭파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없었다

당시 육군 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대교 폭파를 명령한 후에 시흥으로 향했다. 그 전날인 27일 오후부터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육군공병학교의 작업조는 공병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3개의 철교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했다. 이는 전술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탱크 남침 속도를 늦추고 남한이 대응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고 UN군이 참전

할 시간을 주었고 북한군 패배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의 2016년 연구발표로 폭파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혀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인도교 폭파의 직접적 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승만은 당시 군 통수권자로서, 인도교 폭파를 지시한 자의 총책임자로서 간접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폭파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당시 30세)을 책임자로 지목, 군법회의에 넘겨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 받아 비로소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국립 서울 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전쟁사 측면에서 북한은 한강 다리 폭파를 예상하지 못해 결국 남한 점령은 실패했다. 김일성 등은 국제 재판소에 전범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 글은 학술연구가 아니며 지면 제약으로 인용 없이 정리한 글임을 밝힌다.) **만남**



서울 시가로 들어오는 북한군

| 출처 국가보훈처



9·28서울수복 후 미 해병대가 폐허가 된 서울시내를 살피고 있다

| 출처 전쟁기념관

영락교회와 함께해 온 군선교연합회



군선교연합회의 지난 역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백년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군복 음화는 민족복음화> 표어 아래 태동기를 거쳐 틀이 완성되었다면, 광선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비전 2020> 구호 아래 이룩한 군선교는 세계 선교사에 기록될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POST 2020의 급변 시대에 연합회는 새로운 지도부(이사장 김삼환 목사)와 함께 새로운 군선교 비전

<비전 2030>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군목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현장의 군목(군선교사)들이 힘차게 선 포했습니다. 과거 군선교가 '가두리 양식장'으로 대변되었다면, 현재는 상황과 여건이 급변



이정우 목사
군선교연합회사무총장
전남성대군인교회

하고 있습니다. 군 내 인권 문제 부상, SNS 사용 (훈련병 포함), 휴일 외출 외박,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교회 성장 감소와 후원 감소 등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녹록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절한 기도와 함께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선교적 환경과 여건을 마주하며 절대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2년 전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처음 군에 복음이 들어갈 때부터 현재까지 군선교의 모체일 뿐 아니라, 상징적 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부터 현재 김운성 위임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군선교를 위한 섬김을 비롯하여 영락 출신의 군선교 베테랑 최창근 장로님, 방인숙 전도사님, 김덕윤 권사님, 이재규 장로님 등 일일이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독보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창근 장로님의 시드머니(종잣돈)는 현재의 군선교연합회 건물이 있게 한 마중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상징인 군선교연합회는 영락교회와 함께 시작한 역사로서도 각별한 것 같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6월 26일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희년 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설립 반세기를 지나면서 지휘부 교체, 비전 2030 선포 및 출범 등 새 술을 새부대 담아 시작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으로 좋은 틀을 다져 추진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군선교연합회와 함께 역사를 호흡해 온 영락교회에 연합회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나누어 봅니다.

1. 공신력과 투명성을 더하는 기관

연합회가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이루어 온 수많은 과업과 업적은 과히 독보적이어서 그 수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분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보완과 변화의 목소리가 상존합니다. 선대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 보전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선교적 대안 제시와 전진을 위해, 지나온 일들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합회는 자발적 재점검 차원에서 로펌에 의뢰하여 조직 진단과 정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조직, 법령, 그리고 재정을 점검하고 새롭게 보완하여 더 탄탄하고 투명한 군선교 대표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입니다.

2. 현장성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추진하는 한편, 군목들의 자가 진단 결여와 함께 적극적으로 전략 및 정책 현장을 주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성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군선교 주체의 선교는 현장의 전문가인 군목이 주도하고, 연합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연합회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 그리

고 사무총장으로서 간격을 유지하며 매진하겠습니다.



3. 군종교구로서의 면모

군선교 현장에서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군목을 10개 교단에서 파송하는 이유로 인해 힘을 함께 모으지 못하고 각자의 목소리로 나누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는 4개 종교가 모였고, 각 종단의 군종장교뿐 아니라 개신교 10개 교단의 군목들이 모인 성직자 백화점입니다.

기독교군종교구의 정체성은 각각의 교회주의와 교단주의를 넘어 연합과 합력으로 다져진 교단 연합체입니다. 타 종교의 강점이 단합과 한목소리라면, 우리 기독교의 강점은 열정과 저력입니다. 열정과 저력이 연합 및 협력으로 다져질 때 한국교회의 군선교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이길 수 있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뚫을 수 있으며, 다변화된 군선교 현장에서 군목과 군선교사 사역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기획하고 관여한 기

독교군종교구는 교단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일이나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등에 있어서 군종목사(군선교사)의 선교적 환경을 대변하고 여건을 보호하는 기능 차원의 필요성이 절박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 조성은 지속해서 요구될 것입니다. 군선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종목사(군선교사)를 돋는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현장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일치를 위해 힘쓰며 연합정신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품격으로 연합회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 사무총장으로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4. 포스트 코로나와 〈비전 2030〉 안착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Untact 시대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도 새로운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SNS 사용이 상시화되고 있기에 사이버 플랫폼, 유튜브, IT 콘텐츠 개발 및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시대적 요청인 미디어 시대 선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한 낚싯대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비전 2030〉 안착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시작점이다 보니 현장의 군목과 연합회가 소통하고 해소해야 할 소요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소하여 “세례를 거품 빼고 내실 있게! 양육의 시스템화! 매년 10만 장병 세례, 10년간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와 연결/안착”하도록 현역 군목(군선교사)과 함께 숙의하며 추진할 것입니다.

5. 발빠른 정책 대응

국방부 정책 결정의 영향력은 큽니다. 군선교 환경조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로,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92조 6항을 없애려는 시도나, 부대 내 기독교 차별 움직임이 있다면 군목 파송 교단들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 군종 정책에 대해서도 군종교구 차원에서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합니다.

6.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군목과 군선교사 지원 및 관리

영락교회는 매월 7명의 현장의 인력 지원을 위한 군선교사 활동비 지원, 매년 노후 교회 시설 관리/리모델링 선교 사업비 책정 및 추진, 새 예배당 건축 지원 등 군선교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와 총회를 방문할 때면 시대에 맞는 군선교 방향의 모범이 되는 영락교회를 소개하곤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군선교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과 위문 위주의 사역이었다면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여 영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역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배당은 군의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므로, 연합회는 시설 보수와 함께 능력 기반의 영적 전문가 투입 및 활동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지원,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삼겠습니다. **만날**

형성의 교육, 영락교회의 미래를 찾는다

- 다음세대를 위한 전략세미나

1. 척박해진 토양을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면, 저는 1990년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할 때 청소년과 우리 사회 전반에 점점 더 강하게 밀려드는 세속화 물결을 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품고 유학했던 영국에서 한국보다 한 세대 이상 먼저 강력한 세속화의 파도를 겪었던 서구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체험하고 공부하며, 문제의 뿌리를 통찰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영락교회에서 섬기면서 한국 사회도 이미 개인과 가정, 학교와 교육, 문화와 법제도 전반이 세속화된 토양으로 변해 버린 현실을 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여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꽤 많은 교회가 ‘좋았던 그 때’처럼 다시 아이들을 모으고자 노력해도 역부족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지나며 여러 교회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의 부족, 전문적 프로그램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 하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단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헌신 부족과는 달리 각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식으로는 현 상황을 대처하기에 한계에 이를 듯한, 이미 모래알처럼 흩어진 다음세대라는 밭의 영적 산성화가 이미 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산성화는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신앙이 형성될 토양이 매우 척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파편화된 개인주의(개체적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단절된 관계와 문화, 단절적 의미 형성 방식, 자기 생존 중심의 경쟁적 사회 문화 등이 이미 가정, 학교 교육, 친구 관계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 현장에도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니 씨앗이 심어지지도 자라지도 못하는바 ‘신앙 형성’ 가능성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 ‘신앙형성’ 공동체 복원과 회복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형성’의 역량을 가진, 질적으로 다른 신앙공동체들의 복원과 회복입니다. 다음세대의 토양을 다시 기름지게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세대가 형성되는 모든 주요한 곳 (그들의 만남과 소통방식, 그들의 가정, 그들을 둘러싼 신앙 세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닮은 공동체적 능력을 다시 소생시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교육부는 세미나를 통해

- ① 현세대 이해 및 소통에 관한 주요 방법으로 대두된 '메타버스'
- ② 신앙 형성의 근본 토양인 '다시 가정'의 중요성
- ③ 단절된 시대 속에서 다시 세대 통합적 교육으로

이 세 가지 관점을 논의하여 다음세대 신앙 형성의 가능성과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교육부 전략세미나: 형성의 교육을 향하여



일정 및 장소	주제	강사
4.16(토) 3:00-4:30pm 50주년 기념관 4층 중등부실	메타버스 시대의 신앙/교육	송일섭 초빙교수 송설대, SK 텔레콤 부장
4.23(토) 3:00-4:30pm 드림홀	코로나19 이후 다시 가정이 중요하다	신형섭 교수 장신대
4.30(토) 3:00-4:30pm 드림홀	세대통합 교육이 온다	김대진 목사 싱크웨이즈 대표


영락교회 | 교육부

* 위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 '영락교회교육부'를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 주요 리더들의 세미나 참석 소감(일부)

영락교회의 다음세대에 관한 염려가 끝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세미나는 그 해결 모색을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 메타버스 같은 신세계를 빠르게 교회 교육에 접목하는 것, 교회와 가정을 밀접히 연결하는 역동적이고 초시공간적인 신앙교육 강화, 기존 교회학교를 넘어서는 세대통합모델 도입과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방향이 잡히고 좌표가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 정천우 교육부 부장

'다시 가정으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가정의 역할을 깨달으며 세대통합과 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 양인성 교사교육부 부장

급변하는 현 상황을 보면 교회도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세상 변화를 따라가기에만 급급하여 생각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행동하며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하석렬 영아부 부장

메타버스, 가정, 교회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기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메타버스에서 함께 노는 도전이 이뤄지고 일반교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 강동호 초등부 부장

온라인에 익숙한 다음세대의 환경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전달 할까’ 고민만 하는 우리에게 다음세대와 공감하고 새로운 지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준 의미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 차영균 소년부 부장

다음세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회학교 공과 공부에 이용하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장소인 가정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었으며 신앙교육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김명권 고등부 부장

코로나 감염으로 잠시 침체했던 교육부 사역이 재도약을 위해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의 뒷모습이 끝까지 선한 영향을 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일환 대학부 부장

현실적으로 세대 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3주간 교육부 전략세미나는 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무척이나 적절하고 시원한 강의였습니다. - 흥영남 청년부 부장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현행 지역별 교구를 기본으로 하되 자녀 연령별 교구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주현 교육부 차장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노아의 홍수시대에 가서 노아와 함께 방주도 만들고 홍수 시기에 방주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학생들과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정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과 동행하면서 궁휼 사역과 보내는 사역에 교회 전체가 힘써야겠습니다. - 김정훈 교육부 차장

4. 마무리하며

세 번의 연속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지식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길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영락교회와 이 땅의 다음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안남**

새로운 시대의 교회 선교 운동을 꿈꾸며

미션파트너스의 사명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인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전파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비전(요한계시록 7:9~20)을 꿈꾸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을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미션파트너스(Mission Partners)’는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와 파트너가 새로운 선교자원을 발굴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미션파트너스의 역사

미션파트너스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선교 동력화를 위해 대학생선교단체, 해외파송단체, 그리고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섬기는 선교 운동인 선교한국(Mission Korea)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선교한국은 새로운 선교사를 발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삶에 참여하도록 돋는 운동입니다.



한철호 선교사
미션파트너스 대표

선교한국운동은 1988년 선교한국대회를 시작하면서 태동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선교한국은 ‘선교한국대회’와 ‘선교한국파트너스’의 두 사역으로 분화되었다가 2015년 ‘미션파트너스’가 완전히 독립하여 새로운 단체로 탄생했습니다. ‘미션파트너스’는 교육을 통한 선교 동원이라는 새로운 선교동원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교 동원이 한 번의 이벤트(Event)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Process)을 통해 이루어야 하기에 교육을 통한 선교 동원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션파트너스의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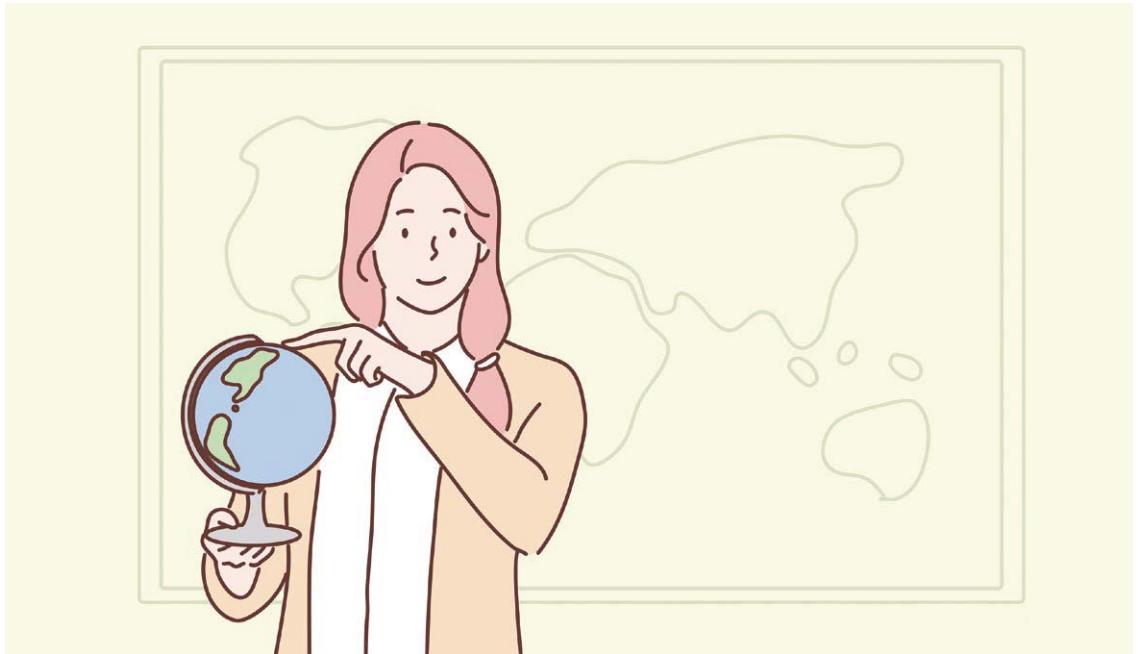
선교 관심자와 헌신자 그리고 교회가 세계를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돋기 위해 미션파트너스는 네 가지 영역에서 동원 사역을 합니다.

(1) 훈련

선교 교육에 관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합니다. 퍼스펙티브스 등 다양한 수준의 선교학교를 비롯하여 새로운 선교자원 발굴에 필요한 각종 훈련과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돋습니다. 아래와 같은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각 교회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퍼스펙티브스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선교 훈련입니다. 1973년 미국에서 개최



한 열바나 선교대회(선교한국대회와 같은 청년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게 된 수많은 젊은 이를 돋기 위해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을 만든 랄프 원터(Ralf Winter)박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미주에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훈련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훈련으로 받고 있고 선교단체 대부분에서도 필수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와 대학생뿐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선교기초 과정으로 채택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미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도종족운동과 전반개척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한국은 현재 '미션파트너스'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도시와 신학교뿐 아니라 해외 한인교회, 그리고 현장 선교사 중에도 매년 2,000명 정도가 이 과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는 온라인으로

훈련 진행 시스템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중요 도시에서 지역교회들이 본 훈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② 넥스트스텝 (Next Step)

넥스트스텝은 선교에 대한 기본적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양한 선교에 참여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에 관한 기본적 지식은 있지만, 선교의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는 교회와 개인을 돋는 과정입니다.

③ 미션디스커버리(Mission Discovery)

미션디스커버리는 지역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의 소규모 인원이 단기간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선교의 기초적 내용을 스스로 발견하여 찾아가도록 돋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4~5주 정도 탄력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 없이도 동영상을 통해 스스로 운영

하는 선교기본훈련 과정입니다.

④ 프렌드십퍼스트(Friendship First)

이슬람은 세계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로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집단입니다. 우리는 종교로서의 이슬람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모슬렘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교가 아닌 사람으로 모슬렘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모슬렘과 우정 어린 분위기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돋습니다. 선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모슬렘에게 친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돋는 과정입니다.

⑤ 21세기 단기선교학교

(Short-term Mission School)

매년 여름과 겨울 휴가철이면 많은 교회가 국내외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반 성도가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역이 단기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사역이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역으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 여행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 모든 선교 방식이 새로워져야 하듯이 단기 선교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21세기형 단기 선교 여행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⑥ 텐트메이커스쿨(Tent-Makers School)

선교적 여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텐트메이커의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

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텐트메이커 사역의 원리와 삶을 들여다봅니다. 직업인이 타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직업을 통한 선교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 포럼/세미나

21세기 세계선교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선교 동원과 참여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선교 동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다양하게 시도하고, 이를 포럼을 통해 확산하여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를 돋습니다. ‘적합한 선교사 파송’, ‘21세기형 단기선교모델 개발’, ‘설악포럼’, ‘방콕포럼’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청년선교동원가네트워크, 교회목회자동원가네트워크, 세계청년선교동원네트워크(Student Mission Mobilizers' Network), 단기선교동원네트워크 등을 통해 새로운 선교자원을 세울 리더를 연결하고, 선교현신자를 위해 예비선교사를 럽, 멘토링 프로그램 확산합니다.

(4) 정보출판

홈페이지와 SNS를 기반으로 선교 관심자와 현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선교 정보를 연결하여 최신의 선교 정보를 나눕니다. 단계별로 도움을 주도록 관련 자료 및 단행본 출판과 잡지(Mission Korea Review) 발간을 통해 선교 방향을 이해하도록 돋습니다.



맺으면서

한국 교회 선교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침체와 맞물려 선교도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016년 2만 5천 명을 정점으로 더는 늘어나지 않는 선교사 파송 숫자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굳이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엄청난 수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의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현재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의 한국 거주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중요한 사역

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사 몇 명을 더 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옆에 와 있는 외국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듯이 선교도 같습니다. 이제 한국선교는 교회 전체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션파트너스는 한국 교회의 선교 교육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여 선교 동력화에 최선을 다함으로 한국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선교에 참여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만남**

주님! 이곳에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황OO 선교사



모퉁이돌 선교훈련 1기 훈련생들과 신학교 총장(오른쪽 2번째)

M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지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분열 소식으로 이제 M국은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힌 듯 합니다. 지금 M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텅 비어 있던 거리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하고 도심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M국은 사회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국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서민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 있는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전기 공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M국 최대 도시인 양곤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정전은 일상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외곽 지역은 이를 간격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상수도 시설이 없어 우물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양곤의 많은 지역에서는 전



현지교회 예배광경



현지 성도 심방

기 공급마저 끊어져 생활용수를 구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구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
데타 이후 물가는 두 세배에서 크게는 다섯 배까
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M국 서민들의 삶은 더
욱 힘들어졌습니다. 서민들의 밭인 버스 회사들
마저 부도나는 바람에 M국 사람들이 겪는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교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년 사역은 찾은 정전으로 웅활한
진행이 어려워졌고, 지역에 따라 정전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 시간을 정해 모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힘을 쏟고 있는 〈모
퉁이돌 선교 훈련〉 사역도 여의찮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선교현신자 양성을 위해 일정 기간 숙식
하며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데 타지인의 거주에 대
한 군경의 까다로운 감시로 인해 훈련생들이 자유
롭게 훈련소로 오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
운 것은 〈모퉁이돌 선교 훈련〉 사역을 함께 구상
하고 이 사역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
탰던 M국 현지 장로회 신학교 총장님께서 코로나
로 인해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일입니다. 산소 공급

을 적시에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총
장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M국 쿠데타로 인해 급히 한국으로 철수하
던 비행기 안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
지 제자와 성도들을 두고 간다는 죄책감과 M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으
로 한국으로 오는 내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다
시 M국으로 복귀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설렘과 기
대보다는 염려와 무력감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발
견했습니다. 과연 M국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
이 있을까? 내가 M국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까? 이런저런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
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가시기 바로 직
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
습니다.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하
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을 찾는다
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
니다. (창세기 18:22~32)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청년 사역

어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도 찾지 못해 염려와 불안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인이 없어 멀망해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자기 자신 만큼은 의인이 되어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8~19)

M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서 M국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유능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 땅을 가슴으로 품고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 한 사람입니다. 비록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여물어 가는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키신 참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본받아 살아가는 의인을 이곳 M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시편 147:3)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곳 M국에도 구름같이 허다한 의인들로 인해 하루빨리 치유와 회복의 날이 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날**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행진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신명기 1:6~7)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후 때가 이르자 약속한 땅으로 행진하여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앉아 있던 우리에게 현재의 습관을 떨치고 일어나 새 시대를 향해 행진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영락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새 시대를 준비하여 행진하고자 합니다. 4월 24일 베다니광장에서 남선교회 만남의 날을 진행한 데 이어 5월 21일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를 대광고등학교에서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회원들이 만나 정담을 나누고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믿음의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등산, 탁구, 테니스, 족구, 포토, 하모니카 동호회를 소개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동호회 만남의 날 행사도 병행했

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서 남선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여 활기 있는 교회를 만들 어가길 기대합니다.

남선교회는 여전도회와 함께 선교부에 소속된 자치단체로서 믿음과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연장인 제1남선교회부터 가장 젊은 제4남선교회에 이르기까지 각 선교회가 선교부를 통해 다양한 협력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교회마다 특화된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주력하고 있습니다(표 참조). 모든 남성 성도들께서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선교회에 가입하셔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봉사하며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 남선교회별 모임과 주요활동

구분	연령대	주간 정기모임	주요 활동 분야 및 후원
제1남선교회	63세 이상	금요기도회 18:30~20:00 (선교관)	군선교 후원-미자립교회, 군선교 사역자, 해외선교사
제2남선교회	53~62세	화요기도회 19:00~20:30 (50주년기념관 503호)	해외선교(우물 파기),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주관 후원-미자립교회, 자유인, 해외선교사
제3남선교회	43~52세	주일 11:20 ~ 12:30 (봉사관 304호)	인터넷해외선교봉사 후원-미자립교회, 쪽방촌, 해외선교사
제4남선교회	35~42세	주일 13:00 (영락어린이집 새별동)	네팔 아가페 훔 후원-고아원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

2022년 북한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라는 주제로 북한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2022년 북한선교대회는 복음으로 남과 북이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되기를 염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복음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남한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이 땅은 오직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 있는 자유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인들은 통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하나가 되도록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오늘 영락교회의 주역,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섬기기 위해 공신력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노력 또한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서 2:10)라는 말씀을 모토로 2022년 북한선교대



김진우 목사
안양·수원교구
북한선교부

회가 6월 15일(수)부터 19일(주일)까지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선교대회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다소 위축 되었던 북한선교에 대한 열정의

기지개를 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대회 주강사로 장석교회 이용남 원로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자유인 100명 초대 행사>와 자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 <복음통일학교 수료식> 등 북한 땅을 떠나온 자유인들과 함께 마음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 현금은 북한교회 재건과 자유인 목회자 및 자유인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2022년도 북한선교대회는 수요기도회의 북한동포사랑기도회(6월 1일, 9일, 16일)와 <30일 기도카드 배부> 및 북한선교부 실행위원회들의 <30일



자유인 작가 전주영, 〈State〉, 100×72.2cm, Oil on canvas, 2021

릴레이금식기도〉로 시작합니다.

영락포럼은 강동완 동아대 연구교수의 <북·중 접경에서 바라본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50주년기념관지하 1층에서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2020년 사진)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당일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공동기도문 낭독, 홍보영상 상영 등을 하며, 베다니광장에서는 ‘30일 기도문’ 전시 및 교육부 연계 프로그램으로 ‘북한 장마당’을 자유인들과 함께 준비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북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북한선교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높이고자

복음통일학교(정착도우미 과정)를 동시에 진행하고, 송악기도처 방문(6월 18일)을 통해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선교의 염원을 담아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남북한 복음적 평화통일을 기대하며 향후 자유인들이 복음통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준비해 가면서 참여하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안남**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경험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체험이 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난 세월에서 경험한 은혜의 기억이 적용됩니다. 지난 세월에도 나와 함께하셨으니,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이코스 5월 4일 영상 중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위 말씀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장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이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어린 시절 저는 주일 아침마다 방영하는 만화 영화가 재미있다는 평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만났던 교회학교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토요일,



권영현 전도사
서대문·은평교구
예배위원회

주일마다 집으로 연락하셔서 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배가 시작했음에도 제가 보이지 않으면, 늘 전화해서 제가 예배에 나오길 바라셨죠. 그 관심 덕분에 예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신앙에 발을 디디고,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새롭게 만나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고 신앙 권면이 필요할 때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삶의 여행

‘신학을 공부하겠노라’ 결심하고 신학교, 교회, 도서관, 집을 맴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교회 밖 사람들로 인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제가 살아왔던 세상은 큰 세상의 작은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를 꿈꾸고 성장하면서 계속 신학교와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면, 교회 밖 세상과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며,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며 장사하는 현장, 때로는 땀이 범벅되도록 일하는 공장, 온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 등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하며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경험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기억입니다.

가끔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예전 경험을 떠올리면 성도님 앞에서 더 겸손해집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해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영락교회 안에서

지금은 영락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통해 은혜의 여정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구 성도님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작고 소소한 삶을 통해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은혜의 기억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려움과 아픔의 삶에서는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함께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억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건만이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고 작은 삶의 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세워졌습니다. 우리 삶에는 각기 다른 믿음의 집이 존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각자의 집에서 회복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며 이겨내기도 합니다. 간혹 충격이 너무 커서, 믿음의 집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은혜의 기억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기억을 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연스레 스며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함께 나누는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만남**



실정법 속에 살아있는 십계명

1.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신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서 해석하신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법률을 전공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예수님의 법 해석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성경 속에 어떤 율법이 있을까? 지금의 우리의 법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법철학을 전공하는 분 중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율법을 신법(神法)이라 하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법을 세속법이라고 구분하고, 세속법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본질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관점에서 세속법을 볼 때,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용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는 가치와 존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본질 없음’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데, 세

속법 또한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정말 세속법은 성경의 하나님 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깊은 철학적 사유를 잘 모르는 내 눈에 성경 속에서 세속법과 비슷한 내용의 율법/말씀이 꽤 많이 보인다. 세속법의 시원(始原)이 하나님 법에 있다고 주장할만한 것이 성경 도처에서 발견된다.

2. 구약의 율법과 실정법 비교

현시대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구약 시대에 이미 많은 율법이 있었는데, 오래전 시대의 이 율법이 오늘날의 세속법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놀랍다.

가. 십계명과 세속법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시며, 그 주권에 근거하여 십계명과 율례를 주셨다. 십계명을 크게 구분해 보면 (i) 하나님에 대한 계명(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절대 주권)과 (ii) 사람에 대한 계명(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으로 나눌 수 있다.



정우영 안수집사
서초교구



십계명의 내용은 – 하나님 주권을 천명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 오늘날에도 거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정법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형법상 ‘존속 협박’, ‘상해’, ‘살인죄’를 명문으로 두고 있으며, ‘음행매개죄’를 두어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절도죄, 위증죄 및 사기죄 등은 십계명과 다를 바 없다.

나. 불법행위법과 세속법

① 출애굽기 22장 5절(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은 우리

민법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의 경우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② 출애굽기 21장 33~34절(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은 우리 민법 제758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③ 출애굽기 21장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 와)의 정신 즉, 현대법률에 있어 손해배상법의 대원칙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정신은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하는 과실상계(제763조, 제396조) 규정과 가해자의 배상액감경청구 규정(제765조)에 잘 반영되어 있다.

④ 이 외에도 출애굽기 21장 및 22장에 나타나는 많은 율례가 현대 세속법률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은 부지기수다. 그래서 미국 사법시험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불법행위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84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에 불법행위(torts)라는 명시적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다음 부분에 나오는 창조주가 모세에게 말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법행위 규범(tort rules)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불법행위 법의 근간을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신약의 신법과 세속법

가. 예수님의 법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응보형주의(정의주의)와 율법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는 율법주의를 느끼곤 한다. 하나님 법의 본질이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누가복음 11:42)라고 하며, 법규범의 문리와 형식적인 면에 천착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나무라셨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의 법에 종속되지 말고 의의 법에 종속되기를 소망하시며 다음과 같은 법을 주셨다.

즉, (i) 내면의 법 (8복: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궁휼, 의에 목마름,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해 펫박받음) (ii) 사랑의 법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펫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iii) 겸손의 법(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iv) 공의(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주셨다. 이러한 새로운 법

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시며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셨다.

나. 세속법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법

(1) 내면의 법: 우리 형법은 형식을 중시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을 기준으로 죄인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한 행위,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행위 등은 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랑의 법: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3) 공의: 현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은 정의의 한 분파이고, 정의는 공의의 세속적 표현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세속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를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내면의 법, 사랑의 법 및 공의는 현대 세속법률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톨스토이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랑 없이 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법률가의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4. 결론

현대 세속법률 또는 현대 법률의 기본 정신이나 원칙의 유래는 대부분 성경에서, 그중에도 상당 부분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문면(文面) 그대로 형식적으로 읽기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을 수 없다. 바리새인과 그 시대의 율법학자가 그러한 우를 범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율법에 생명을 불어 넣고 살아 있는 율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52) 하시면서 열쇠를 사랑으로 돌려 문을 열 것을 요구하셨다. 현대 세속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해석해야 살아 있는 법이 된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판결이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만날**



기도 속에 객관적 태도로 공감을

밝고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명랑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상담자리에 함께하는 삼자(三者)에 관한 셋째 퍼즐, 바로 내담자(來談者)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요청하는 주체이고 상담자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상담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담자에 관련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담자와 만날 때

먼저 상담의 자리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에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대(歡待)입니다. 환대는 만나는 내담자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상담자가 능동적으로 이미 기쁜 마음으로 내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무엇보다 환대는 깊고 넓은 의미에서 존재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공감하고 환대할 때에 상담을 잘 이룰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

되는데, 이를 상담(심리)에서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라포 형성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환대와 공감이 있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

에 라포만 형성되면 상담자가 아무 말 없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라도 내담자 스스로가 답을 찾고 위기를 극복하는 상담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일어나는 자리

패치 아담스(Patch Adams, 1998년)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중독과 자살로 삶을 망가뜨리며 정신병원까지 가게 된 아담스라는 주인공이 우연찮게 병원 동료가 자신에게 붙여준 패치(Patch)를 통해 치유와 회복에 관련한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통해 삶의 의미와 꿈을 발견하고 수년 후에 의사가 됩니다. 끊임없이 현실과 부딪히며 꿈을 실현하려는 아담스의 분투어린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서 아담스의 의학과 학우인 캐린이 함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사로의 꿈을 실천하다가 정신이상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화는 이 위기를 극복하며 아름답게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아주 드문 일이지만 정신이 불안정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事故)입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담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담자가 두려움과 위축감으로 사역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상담할 때에 내담자를 환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진단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하며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담자와 관련한 세 가지 제언

먼저 내담자가 일반인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담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약물치료와 장기치료가 필요한데, 그 영역은 대부분 정신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청년부 교역자로 있을 때 경험입니다. 가정 문제로 공황장애 치료 이력이 있는 자매가 이성문제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서적 어려움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는 청년부 여성 지체들 몇 명이 그 자매를 매일 밤 교회로 불러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며 상담자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공황장애가 재발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병원 방문 전 대응이 부적절했고 앞으로 병원에 일찍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어 공감(共感)과 동감(同感)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감(同感)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정서의 바다를 헤매는 표류이고, 공감(共感)은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과 목적지를 따라 정서의 바다를 지나는 항해입니다. 정서적 교감은 앞서 말씀드린 라포 형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것(로마서 12:15) 만큼 대상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만 있는 교감 관계는 상담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어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내담자의 정신적·심리적 병리에 끌려가는 여러 문제(전이와 역전이, 가스라이팅 등)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한계를 알고 내담자와 적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1~2)

절한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상담을 하는 이들은 전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내담자의 치유와 회복의 결과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예방과 진단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방과 진단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성정이 따뜻하고 열정이 있는 상담자들은 경계를 두는 것에 불편해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 냉정하게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 배운 상담의 기술을 내담자를 통해 적용하는 첫 현장으로 가정을 손꼽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배우자라서 회복이나 치유하기 어려운 관계적 거리가 이러한 적절한 경계를 통해 기다림으로 나타날 때에 가족 관계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만남**

부부학교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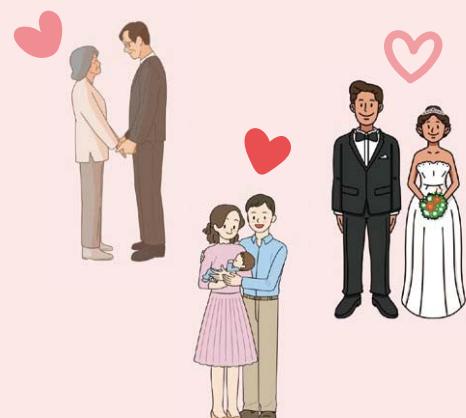
일정 6월 4일 ~ 6월 25일(매주 토요일 2시, 4주간)

장소 온라인 Zoom

인원 선착순 15쌍

회비 4만원

문의 상담부(봉사관 303호) 전화 : 02-2280-0171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2)

와! 동준이가 여기 있네!

올해 교회 달력 6월 사진에 조카 한동준이 한가운데 서 있다. 해외 선교 현장이다. 아버지가 예뻐하고 제일 사랑한 친손자인데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하실까? 동준이 모습과 아버지 생각이 침체되어 있던 나를 일으켜 세웠다.

9살이었던 그해 많이 아팠다. 어머니와 영락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서원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하셔서 기도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 건강하게 자랐고 초등학교 5학년 성신교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파트로 찬양할 때 “하나님 제게 좋은 목소리를 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은 나를 성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세종대 음대에서 성악 전공으로 수석 졸업하는 영예도 누렸고, 그 외 러시아 국립음악원과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를 더 하게 되었다.

영락기도원에서 서원기도를 드린 지 31년이 지난 2011년 영락교회 어린이영어예배부 CebC 찬양대 지휘자가 되어 영락기도원에서 드렸던 어릴 적 서원기도를 생각하며 기도의 능력을 확인했다. 다음 해 Cebc 워십 팀과 찬양대가 통합하면서 반주자가 되었다. 어릴 적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어머니는 내가 피아노 반주자 되도록 서원기도했다고 그제야 말씀하셨다. 영광스럽게도 반주자로서 2014년 제1회 한경직목사기념상 시상식 피아니스트라는 경력을 추가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2003년 세종대 총동문 기념음악회로 열렸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여자주인공 아디다 역을 맡아 열연했던 여운은 지금도 멋있게 남아있다. 이듬해인 2004년 2월 영락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로 오게 되었을 때 영락교회 본당에서 찬양하게 된 일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아버지가 그해 4월 7일 하늘나라에 가셔서 큰 슬픔에 잠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아버지가 가시고 두 달 후, 6월 25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 알리스 틀리 홀에서 열린 세계합창제에 솔리스트로 서는 축복을 주셨다.

내 인생의 굴곡에서 남겨진 상처들을 이제 치유 받고 “주님!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 드린다. **만남**



한수연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Cebc 반주자

청빈·겸손·사랑을 배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사회적 활동이 동결되다시피 했을 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김운성 위임목사)가 개설한 <한경직복음학교> 1기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1년여 준비기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공의의 신앙이 바로 복음주의 신앙임을 강조하셨던 것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설교 28편을 선택하여 145쪽 분량의 복음학교 교재 워크북을 만들었다. 복음학교는 4주 과정으로, 워크북을 활용해 하루에 설교 한 편씩 본문, 설교 개요를 읽고 그날의 자기 삶을 기록한다.

<한경직복음학교>는 2022년 3월까지 일반과 당회원으로 나뉘어 총 8기 104명이 수료했다. 나는 오랜 기간 교회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를 지낸 경험을 내려놓은 은퇴장로 입장에서 한경직복음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경직복음학교 1기 과정에 온 가족이 합심하여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한 목사님 추모 22주년 기념주간인 지난 4월 19일(화) 오후 1시, 본당에서 수료자 전체 ‘통합수료식’을 가졌다.

복음학교의 대명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본받는 것은 생각, 감정, 표정, 말씀 등을 포함하여 행위, 행동, 그리고 삶 전체가 그 대상이 된다. (고린도전서 11:1) 한경직복음학교 워크북의 대 주제는 <하나님과 나/나와 이웃/ 나와 물질>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복음학교 핵심 내용

4주간 진행하는 교육은 복음학교 개요, 영성 에세이, 4주간 주제별 성경 본문, 1일 말씀(2쪽 분량), 영성 질문, 마음으로 새기기, 주제 말씀 반추하기(2가지), 하루의 삶 반추하기(9가지)와 일기 쓰기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의 마무리는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문 리뷰와 영화 시청 등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 신앙관 및 목회관을 요약하여 총론과 각론으로 균형감있게 엮어졌다.

교육 첫 주는 ‘나의 삶의 방향 전환(나는 어떤 한 삶을 살아야 할까?)’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며, 둘째 주 ‘하나님과의 교제(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셋째 주 ‘이웃과의 관계(나와 이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넷째 주 ‘나와 물질의 관계(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청지기)’로 이어진다. 실제 교육은 매주 주제를 기념사업회 지도목사와 강사들의 주제별 개요와 주제 해설, 그리고 묵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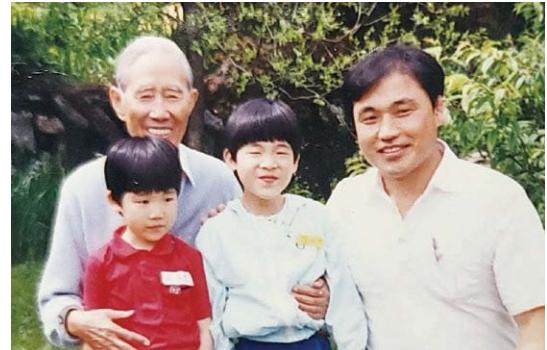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받았다. 첫날은 교회에 모여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친 후, 한경직복음학교 티셔츠를 선물로 받았다. 각 조는 담임교사(전도사)와 5명의 학생으로 이뤄지는데, 평일에는 각자 개인별로 과제 및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며 토요일에는 조별 모임을 했다. 온라인 조별 모



김의환 은퇴장로
서초교구

임은 Zoom 회의로 했는데 ID와 비밀번호를 받아 연결했다. 연세가 많으신 은퇴 권사님들도 큰 어려움 없이 참여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담임을 맡은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조원들의 인사, 한 주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개인별 기도 제목-워크북 활용의 어려움 등을 나눈 뒤 기도로 마치기까지 2시간이 쏟살같이 지나갔다.

한경직복음학교는 정말 영락교회만이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책과 복음학교 워크북은 앞으로도 언제든 가지고 다니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경직복음학교를 통해 한 목사님의 ‘청빈·겸손·사랑(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나도 배울 수 있었다.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높이시며, 가족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다. “목회자로서 재산의 소유는 부끄럽다”라고 하셨으며 “선한 씨를 많이 뿌리자. 지나는 길에 많은



어린 자녀들과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를 찾았다(1984년 5월)

꽃이 있어야 한다.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긴다. 한경직복음학교 과정을 모든 성도가 이수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연령대에 적합하게 재구성·편집하여 이들도 함께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한경직복음학교를 한국의 기독교뿐 아니라 세계화로 확산하면 좋겠다. **만날**

■ 한경직복음학교 4주차 워크북 및 진행 내용

1주차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3주차	나와 이웃, 그리스도안에서 교제하기
01	순례자의 생활 (히 11:16)	15	봉사의 삶 (막 2:3~5)
02	예수의 흔적 (갈 6:17)	16	그리스도인의 상부상조 (행 4:32)
03	잠언의 교훈 (잠 3:5)	17	예수님의 손 (요 20:21)
04	인생의 아침 (딤전1:19)	18	성도의 교제 (요1 1:1,3)
05	밝은 비전 (마 6:22)	19	나오미와 룻의 가정 (룻 1:16~17)
06	상한 갈대 (마 12:20~21)	20	인간 생활의 연대성 (창 18:23)
07	마음의 평화 (요 14:27)	21	사람을 낚는 어부 (마 4:19)
2주차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4주차	나, 하나님과 주신 모든 것들의 청지기
08	하나님을 만날 기회 (사 55:6)	22	청지기 (벧전 4:10)
09	범사에 감사하라 (시 103:2)	23	자족의 비결 (빌 4:12~13)
10	예수의 기도생활 (눅 11:1)	24	절제 (고전 9:25)
11	예배의 자세 (미 6:8)	25	도적질하지 말라 (엡 4:28)
12	기도와 찬송 (행 16:25)	26	일용할 양식 (마 6:11)
13	겟세마네의 기도 (마 26:39)	27	절망적세계와 기독교신앙(시 42:5,11)
14	성경 (딤후 3:16~17)	28	자녀에게 줄 유산 (신 6:4~7)

기도하고 행동하여 나라를 구하자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나의 고향’ 정도였을까요? 저는 우리의 어두웠던 시절인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던 안중근 의사, 3·1절 만세운동 전 조국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던져 만세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신앙 선배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이었으며, 조국의 아픔은 곧 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첫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둘째는 몸소 일어나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라! 그리고 일어나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일

어나 행동하는 것! 이것 이 곧 ‘나라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신 계획에 반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고 행동해

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호소합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은 단어 자체로는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매우 위험한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수의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동성애 및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을 교육할 것이며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인식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도 성경의 진리를 외치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이미 학교에서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강력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써 반대해야 합니다.

2.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대처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등에서 행해지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모슬렘 이맘(이슬람 교단의 지도자)들이 강사로 나오는 등 유달리 이슬람만 배려하는 편향된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에 할랄 단지 조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 문화를 침전시켜 전 국가를 이슬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사람들이 경기도 연천에서 이슬람 캠퍼장을



이성원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만들어 이슬람 거주지를 확장하려 시도했지만, 연천군 교회들과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 시위하고 끝까지 힘써 싸워 결국 야영지 개발을 불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도함과 단호한 행동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이런 ‘선교(다와, Dawa)’ 전략에 철저히 반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선 모슬렘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웁니다. 숫자가 불어나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실패로 드러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모슬렘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분위기 속에 ‘차별금지법’마저 제정되면 유럽처럼 이슬람의 폐해로 대한민국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분별하여 그들을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으로 여기되 무조건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모슬렘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경대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난다면 모슬렘에 대한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글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차별금지법과 여러 악한 세력으로 인한 암초에 부딪히고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어 심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당장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끼치는 손해가 없는 것 같아 그저 보고만 있을 것 입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은 서양 국가들조차 차별금지법과 무분별한 이슬람 수용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만큼은 기도하며 함께 싸워서 저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기도 없이 이룬 모든 것은 성공으로 보여도 실패한 것이며, 좋아 보여도 허망한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날**

질병 조기 발견으로 사망위험 감소

- 건강 검진을 받읍시다



경제발전과 환경위생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의학의 트랜드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머물지 않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찾아내는 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택 집사
중구·용산교구
의료선교부
서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번 호에서는 건강 검진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고, 어떤 검진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1980년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검진하기 시작하여 지속해서 확대,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2년 간격의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별로 영유아 건강 검진 (0~71개월), 학생검진 및 학교 밖 청소년검진(9세~19세), 일반검진(20세~65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66세 이상), 암 검진 등이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당뇨병이나 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을 꾀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위암(40세 이상 남녀),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간암(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폐암(54세~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거

나 10% 정도의 적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의료분야 즉 병원이나 검진 기관에서 위의 검사항목보다 다양한 검사항목을 개별적 또는 패키지 형태로 검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유병률이 높고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점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해서 고려할 내용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가령 심혈관계 질환이나 특정 암), 본인의 생활 습관 및 식생활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어떠한 검사를 추가해서 받을지 의료진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추가 검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일차적

유익은 첫째로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망 위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록 완치 확률이 높아지고, 합병증 및 사망률이 감소하며,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만성질환의 경우 발병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미리 파악하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요인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암인 경우도 되도록 초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검진을 통해 질병 진단뿐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의 개선 교육, 상담 등을 통해 건강증진의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남**



‘광야’ 리오로카 채플

Rio Roca Chapel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광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누가복음 5:16)’ 광야 40일 이후 예수 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승천하셨다. 감람산도 ‘광야’였다. ‘광야’는 예수님 공생애의 알파와 오메가다. 기독교인에게 ‘광야’의 의미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우리 현대인에게 ‘광야’란 어떤 곳일까? 광야 교회를 찾아가 보자

1. 외딴 곳, 한 목장주가 봉헌한 30평 채플

거장 건축가가 설계한 대도시의 유명한 교회를 찾거나 작은 자들이 힘을 모아 봉헌한 외딴곳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영한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리오로카 채플(Rio Roca Chapel)은 작은 교회이다. 미국 텍사스주 팔로 펀토 카운티(Palo Pinto County) 그래포드 부라조스 강가의 리오로카 목장(Rio Roca Ranch) 내에 위치한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곳으로, 채플 서측으로 리오로카 목장이 있고 북측으로는 한 채의 단층 주택이 있을 뿐이다.

2006년 리차드 패밀리(Richards family)가 조성한 목장은 곧바로 교회 건립을 추진하여, 2010년 10월 3일에 이곳에 사는 친구, 가족, 이웃이 함께 모여 조촐하게 봉헌한다. 건축가는 저명한 모리스 제닝(Maurice Jennings)이며, 조경가는 댄 샤워와인(Dan Sauerwein)이다. 리오로카 채플은 건축면적 100m²의 원룸형 1층 건물이다.



리오로카 채플 낙수 전면 마당 | 출처: Walter Jennings, <https://www.archdaily.com>

2. 고전적 교회를 압축하여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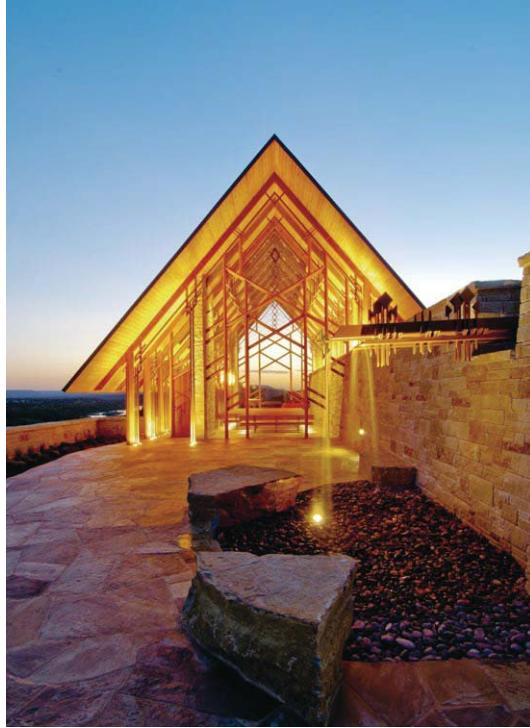
리오로카 채플은 고전적 교회 건축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건축 디자인 콘셉트는 태양 빛과 부라조스강에 대한 찬미라고 볼 수 있다. 팔로 펁토 산을 굽이굽이 흐르는 브라조스강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엄한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초기 개척민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다.

부라조스강은 메마른 텍사스 평원의 생명수이다. 초기 개척한 스페인 사람들은 이 강을 “Rio de los Brazos de Dios(신의 팔들의 강)”라고 불렀다. ‘브라조스강(Brazos River)’에는 초기 개척민 시대에 일단의 일행이 ‘절망적인 갈증 상황에서 발견한 첫 물(the first water)’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브라조스강을 압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강

의 경사지 북쪽 기슭에 남향으로 세워진 채플의 터에서 해와 달 그리고 강의 변주곡을 듣고 볼 수 있다. 강 흐름과 밤하늘, 아침 햇살에 눈 부신 강 줄기, 한낮 태양을 가득 담은 강, 석양에 물든 강 풍경의 극적인 장면을 조망하고 관조할 수 있는 최상의 건축이다. 마치 대자연의 운행을 관찰하는 천문대 같다고나 할까!

채플의 배치는 브라조스강과 같이 동서축으로 있고, 동서측 입면은 전면 유리 벽으로 브라조스강의 풍경과 태양의 궤적을 그대로 교회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채플 영역과 진입 영역의 경계부에 세워진 높은 석회암 용벽은 전면 마당으로 부터 건물 북측 외벽면 동쪽 끝까지 연장되며 실내 벽면을 이룬다. 거친 마감으로 처리된 이 용벽은 채플을 지배하는 척추와 같다. 방문자가 주차장에서 내려 직선 보도로 채플로 가다가 이 용벽



리오로카 채플 정면 전경 | 출처: "Maurice Jennings + Walter Jennings Architects, now Jennings + Santa-Rita Architects"

을 관통하고 나면, 브라조스강의 장엄한 풍광이 펼쳐진다. 이 벽은 성(聖)과 속(俗)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자연석으로 마감된 전면 마당에 낙수 공간을 조성했다. 방문자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물보라를 맞으면서 채플에 들어간다. 전통적인 교회 건축 수법으로 본다면 청결(淸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교회는 빛의 집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세기 1:3)’, 내부 전면 제단부 동측의 전면 유리 벽을 통해서 ‘브라조스강 위의 아침 태양’이 조망된다. 경사지붕 중앙에는 5칸의 천창(天窓)을, 남측 경사지붕에는 5개의 천창을 설치했다. 태양의 운행은 천창을 통해서 내부 공간에 빛과 그림자의 궤적을 명확히 그려낸다. 신의 현존을 명확히 증명해 내는 것이다. 한 인간은 우주 대자연 속에 서 있는 빛의 채플을



리오로카 채플 실내 전경 | 출처: "Maurice Jennings + Walter Jennings Architects, now Jennings + Santa-Rita Architects"



리오로카 채플 천창 | 출처: “Maurice Jennings + Walter Jennings Architects, now Jennings + Santa-Rita Architects”

통해 신을 만나게 된다.

현대 건축의 거장인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Detail)”라고 했다. 신은 정밀, 염격, 완벽 등으로 그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채플 부재인 강철, 나무의 배열은 완벽하고 정밀하다. 구조 시스템은 강철과 제재목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다. 외벽 기둥은 총 6개의 강철 튜브로 이루어졌다. 강철 부재인 텐션 바와 텐버클이 강철 튜브 구조체를 우아하게 보강한다. 미스가 말한 신성(神性)의 디테일은 이런 것들이다. 신이 완벽했듯이 채플도 완벽을 지향한다.

이들 디테일은 내부에서는 거친 마감 석회암의 벽면이 외부의 유기적 자연경관과 대비되면서 그 신성을 더욱 강력하게 발산한다.

3. ‘광야’의 의미

‘광야’는 산천초목, 대지와 하늘, 태양의 대자연 속에 마련된 가난한 자를 위한 공간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려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라고 바울은 말했다. 자연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며 신성의 표현이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 모든 동물과 풀을 사랑하라…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도 보리라… 그대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리라.”라고 말했다.

우리가 채플을 지을 수는 없을 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때때로 물러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나만의 광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남**

오직 찬양 받으실 하나님만 높입니다

– 올해 창립40주년 맞는 믿음·화음·사랑의 찬양대

베들레헴찬양대 대장 조병준 장로, 총무 김진수 권사



창립 이듬해 성탄축하음악예배 (1983.12.24)

1982년 2월 창립 이후,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베들레헴찬양대는 주일 오후 3시의 5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입니다. 금요일 연습과 함께 주일 1시 30분부터 연습하며 온 정성을 다해 예배 찬양을 준비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의 베들레헴찬양대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 분들과 20~40년 근속하신 분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부 함께 찬양대를 섬기는 가정도 많으며, 찬양대원 전체가 각 가정의 경조사를 함께합니다. 대원의 가정에

장례가 생기면 지휘자와 찬양대원이 모두 참여하여 찬양으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며, 결혼식에도 찬양대원이 모두 참여하여 축가를 부르며 함께 축복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국내외 찬양 선교 등 외부 찬양연주에서도 항상 연주복이 아닌 가운을 입고 연주합니다. “연주복은 보여 주기 위해 입는 옷이고 가운은 감추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찬양받으시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기 위함입니다.”라고 강조하신 지휘자 고 박영근 장로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 박영근 장로가 2012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베들레헴찬양대 초대 지휘자로 지휘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백정진 집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반주는 황양숙, 한선미, 고 박영근 장로와 음악의 동반자이기도 한 채문경 오르가ニ스트가 28년간 섬기신 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김진 오르가ニ스트가 반주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찬양대는 경건회를 통해 남정열 지도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대원들이 먼저 은혜받고 영적 충만함으로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며, 대원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독창자들은 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시립합창단 등 국내외 여러 음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되며, 찬양대 내에 <바요나중창단(남성중창단)>, 여성중창단,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로 구성된 <시니어중창단>이 있어 일 년에 두 차례 봉헌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음악예배

7월 10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 창립 40주년 기념음악예배를 베다니홀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초대 지휘자 고 박영근 장로가 작곡한 찬양곡 연주 및 악보집 출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 박영근 장로는 한국 교회음악의 거목인 고 박재훈 목사님의 수제자로 한양대 음대 학장 역임,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역임의 이력을 쌓은 한국의 대표 작곡가로서, 한경직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을 비롯해 오페라‘내 잔이 넘치나이다’ 등 다수의 오페라 및 관현악곡, 실내악곡을 작곡하여 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영락교회 음악 역사에 있어서도 주일예배를 위한 데스칸트를 만들어 찬송하는 등 지금까지도 영락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 40주년 기념음악예배는 지금까지 베



2010년 12월 창립기념주일 음악회에서 베들레헴찬양대와 호산나오케스트라 협연 지휘하고 있는 박영근 지휘자. 수많은 찬양곡 편곡으로 찬양의 지평을 넓혔다



2016년 12월 찬양대원 기념사진

들레헴찬양대원으로 섬겼던 분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모두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창립 기념음악예배로 1983년 구노의 '갈리아', 1985년 구노의 '성 세실리아', 1987년 로시니의 'STABATMATER', 1992년 하이든의 '천지창조', 2002년 창립 20주년 '베들레헴에서 만난 사람들의 찬양'으로 창립음악예배와 기념순회연주를 했고, 2007년 창립 25주년 기념 중국 찬양선교, 2012년 창립 30주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찬양선교, 2017년 창립 35주년 제주찬양선교순회연주 등을 다녀왔으며, 이외에도 슈베르트의 'C장조 미사', 존스테이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드보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칠언' 찬양연주를 비롯하여 CTS, 극동방송 등 외부 찬양연주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4)

현재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는 백정진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누려왔다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베들레헴찬양대원 모두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찬양할 것입니다. **만날**



평화의 기도

교회력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성령강림 주일 이후로는 일반 절기(Ordinary Time)의 녹색주일이 시작된다. 이 시기 찬양대 선곡은 교회력에서 자 유롭게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5월에 가족과 어린이를 생각하고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을 지나는 한국인의 정서상 평화와 위로를 주제로 찬양을 선정하기도 한다. 베들 레헴찬양대는 2, 3년 간격으로 ‘평화의 기도’를 선곡한다.

‘평화의 기도’는 중세시대 수도사 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 1182~1226)의 기도 시로 알려졌지만 1912년 프랑스 신앙잡지에 소개된 작자미상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최근의 고증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작곡가가 곡을 붙이면서 이 땅을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필자는 이 곡을 어린 시절 흑백TV로 처음 접했다. 나라에 애도할 일이 있는 날이면 짧게 머리를 깎은 남학생들이 둘러서서 중창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바로 이 성가곡이었다. 한번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있던 날 저녁이었고, 또 다른 날에도 봤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방송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이 정례화되어 있었던 듯하다. 아름다운 선율과 고등학생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맑은 울림이 당시의 불안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정서와 슬픔을 촉촉이 위로해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충실 고등학교 남성 중창단이었다. 시간이 흘러 필자는 영락교회 고등부 성가대 연습 시간에 이 곡을

악보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내 이 곡이 그때 그 까까머리 중창단의 노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악보 한켠에 적힌 '박영근 편곡'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이셨다.

곡은 김영자 안드레아 수녀(b. 1937)가 1973년에 작곡했고, 가톨릭 성가(찬송가) 71번에 수록되어 있다. 편곡자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

는 합창 편곡은 원곡과 거의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 곡의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먼저 아카펠라, 즉 무반주곡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교회 양식으로(a cappella)'라는 명칭은 초기 기독교 시절 예배에서 악기연주를 금했던 옛 규율에 기인한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악기는 세속적이고, 사람의 목소리만이 예배에 합당하다'라는 선입견

평화의 기도
PRAYER OF ST. FRANCIS

FRANCIS of ASSISI

박 영 근 편곡

- 박영근이 편곡한 〈평화의 기도〉 악보

- 시편창(Psalm tone)이 사용된 부분

VII

- 제7 시편창 (the 7th Psalm tone)

에서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반주 합창이 주는 담백한 사운드가 여전히 어느 정도 ‘종교성’을 연상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특징은 시편창(Psalm tone)의 사용이다. 예로부터 교회에서는 단순한 몇 개의 음의 반복에 시편이나 특정 기도문을 얹어 노래했는데, 〈평화의 기도〉에서는 이 8개의 시편창 중 제7번이 사용되었다. 가톨릭 수녀인 원곡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성가곡에 시편창의 멜로디가 삽입된 경우는 이후로도 흔치 않아서, 〈평화의 기도〉가 가지는 독특한 울림은 여전히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이 곡이 숭실중창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보려 한다¹. 소년 박영근과 이영두는 음악을 사랑하는 동네 친구로 초·중학교 시기를 영락교회에서 함께 보냈다. 이후 휘문고를 다니던 박영근과 안영락, 숭실고에 다니던 이영두와 김영준, 보성고의 윤대경 다섯이 영락교회 고등부 성가대에서 만나 중창단을 결성했는데, 우연처럼 네 명의 이름에 ‘영’자가 있어, 이 팀의 이름을 포영스(four youngs)라 했다. 이들은 고교 시절 내내 뜰뜰 뭉쳐 음악 활동을 했으며, 영등포 미군 부대 채플 등 외부에서도 노래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영두가 1973년 숭실OB합창단 창단과 함께 지휘를 맡게 되면서 여름마다 무이도에서 합숙훈련했는데, 자연스레 숭실OB와 청년 박영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현재 LA에 거주하시는 이영두 선생께서 보내주신 회고이다.

74년 여름 영근이와 나는 무이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영근이가 “애들아,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까” 하며 그 멋진 바리톤 소리로 노래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노래는 넓은 바다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듯했다.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멜로디도 아름다웠지만, 가사가 더욱 심금을 울렸다. 성 프란치스코의 시에 김영자 안드레아 수녀가 곡을 불인 평화의 기도라는 곡이었다. 그해 가을 영근이가 여동생 결혼식 때 축가로 불러달라고 악보를 내밀었다. 〈평화의 기도〉였다. 단선율로 되어있는 곡을 남성 4부 합창으로 편곡한 것이었다. 〈평화의 기도〉가 4부 합창으로 세계 초연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숭실OB남성합창단 연주회 마지막 곡은 항상 〈평화의 기도〉였다. 아직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악보는 혼성 4부 편성으로도 만들어졌고, 교파와 지역을 넘어 더욱 많은 합창단에서 연주하고 있으니 역시 음악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이 곡을 노래하는 곳이라면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이 ‘평화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이 땅의 평화를

1 서적『노래로 만나 평화로 맺은 벗: 영두와 영근』(동의논들) 참고

위한 간구에 동참하게 된다. 전쟁의 아픔과 폐허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던 소년들이 노래와 신앙으로 함께 성장하며 품고 나눈 씨앗이 자라 긴 세월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탄식하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는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아울러 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지는 유산이 다음세대에서도 온전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만날**



백정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백정진 집사는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다. 할아버지부터 영락교회를 섬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찬양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다. 장로회신학대학 교회음악학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영락교회 중등부 찬양대와 대학부 찬양대를 지휘했으며, 미국 신시내티대학에서 합창 지휘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학출강과 예배음악 프로젝트 합창단 (VESPERS)의 음악감독으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음악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화광장 _ 작가노트

하나님과 동행

30여 년간 미술교사로 봉직하다가 정년퇴임 후 강원도 시골에 머물면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 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자연과 가옥 주변의 변화를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표현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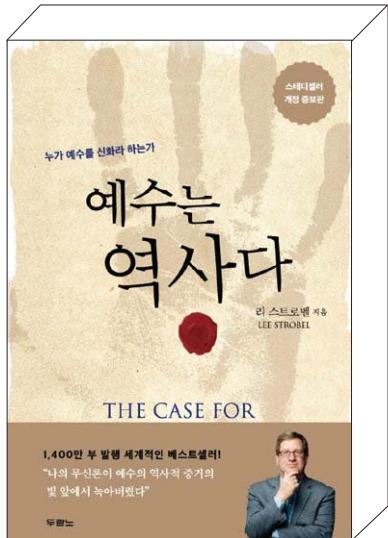
특히, 시편 11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나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았고 작업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합니다. **만날**

전제범 집사 _ 성동·광진교구

예수는 역사다



리스트로벨 지음 / 윤관희, 박중렬 옮김 / 두란노서원 / 2021년

리 스트로벨(Lee Patrick Strobel)은 예일대 출신으로 최연소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 되었습니다. 저널리즘과 법학을 전공 후 법률 담당 기자였던 그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내가 윌로크릭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법학 기자로서의 특성을 살려 성경이 진실이 아니라

는 설득력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결국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밖에 찾지 못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영호 목사
중등부

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고, 새들백 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휴스턴 침례대학교에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며 텍사스 우드랜즈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에서 목사로, 예수님을 부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던 자에서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를 가르치는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록물 검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언하고 있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경의 사본들을 통해 증거를 찾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예수 분석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부활 연구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도, 예수님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의학적, 과학적 증거가 넘쳐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리 스트로벨은 의학박사이며 공학박사인 메드럴 박사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 혹은 약을 통해 죽은 것처럼 만들었을 가능성에 관해 질문합니다. 메드럴 박사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분명한 죽음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



렸을 때 피와 함께 나온 물처럼 보인 액체는 심낭삼출과 늑막삼출로서 이는 질식사에서만 발견되는 의학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 스트로벨은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브랜다이즈 등 대학의 박사로 구성된 13명의 권위자를 찾아 신문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냅니다.

이 책은 2017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책으로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은 먼저 영화를 보신 후에, 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기지 않아 고민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책을 한 장씩 함께 읽으며 대화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리 스트로벨이 그랬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던 것이 설명되고, 궁금증이 확신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만남**

교회소식

영락미술인선교회, 영락수련원 디아섹작품전시와 도서관갤러리작품전시

“아름다운 동행展 (Walking With God)”

2022년 4월 26일 영락수련원에 〈영락미술인선교회〉 30명 회원의 신앙고백이 담긴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전시품은 식당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크



릴판에 작품사진을 부착하는 디아섹방법으로 제작했습니다. 2015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세 번째 교체 전시했으며, 식당벽면에 설치하여 작가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치유와 회복,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또 5월 15일부터 한경직목사기

념도서관 갤러리에 12명의 회원 작품을 설치,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의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48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시각예술을 통한 신앙고백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제공 영락미술인선교회

교육주일, “선생님, 사랑합니다! Bravo, 쌤!”



5월 15일, 교육주일을 맞아 찬양예배는 ‘교육주일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장기근속교사 시상과 멘토교사 임명식이 있었다.

또한, ‘선생님, 사랑합니다! Bravo, 쌤!’ 행사가 제2식당에서 진행되었다. 이철신 원로목사가 영상으로 교회교육학교 각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격려하고 교육부(부장 정천우 장로)는 영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다과, 선물로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백성우(교육전담) 목사의 ‘나를 있게 해 준 당신께(고린도전서 4:14~15)’라는 제목으로 “신앙인의 삶에 영적 전환점이 되는 사람, 한사람의 삶에 긴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 영적인 생명을 낳고,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며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헌신한 교회와 가정의 모든 믿음의 선생님이 계셨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중·고등부 연합찬양대의 찬양, 소년부의 특송, 영아부 교사(김정옥 집사)의 간증과 40년 장기근속(박은옥, 이정란 교사) 외 30년, 20년, 10년의 근속교사 50명의 시상과 각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22명의 멘토교사 임명식을 진행했고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김운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2년 장기근속교사명단

10년 근속: 윤윤숙 임종옥 조성례 이은영 김정옥 김갑분 박정미 양희수 임은수 심혜진 이지순 유재은 이미경 이영종 김동휘 엄미랑 안종찬 황정원 김정연 강동호 이송실 이숙희 김민정 강현은 설근동 윤원상 이소현 유승완 김경은 김송향 김숙영 엄준필 윤종진(33명)

20년 근속: 이금순 윤영미 차인선 이현경 윤재식 홍순희 정혜주 박선미 박성원 이지혜 최연미 흥영남 (12명)

30년 근속: 이용주 김경자 강화자 장혜순(4명)

40년 근속: 박은옥 이정란 (2명)

2022년 한경직 목사 기념예식 및 한경직복음학교 수료식 거행



2022년 한경직목사 기념주간을 맞아 22주기 기념예식과 한경직복음학교 수료식이 지난 4월 19일(화) 오후1시 교회본당에서 열렸다.

1부 기념예식은 유가족과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한경직 기념사업회 연구목사 최승도 목사의 인도로 김용수(B)은 퇴장로의 기도, 교역자 일동의 특송 후, 김운성 위임목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한 목사님은 이웃

사랑과 나라사랑을 위해 일평생 사셨고 예수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이었기에 우리가 한 목사님을 닮는 것이 그를 기리는 이유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 모습, 그 정신을 구현하고 그 신앙을 전승하여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자”고 권면했다.

2부 한경직복음학교 수료식에서는 김운성 목사가 1기 대표 김의환 은퇴

장로와 2~5기 대표에게 수료장을 수여했다.

영상으로 생전의 한목사님 설교를 들은 후, 기념사업회사무총장 정영근 장로가 광고하고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기념예식을 마쳤다.

한편 베다니광장에는 4월 17일 주일부터 23일(토)까지 한목사님 신의주 목회사절부터 시작된 보린원 등 교육 사업, 봉사 사역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 외국인 대상 한글교사 양성과정” 개설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에서는 외국인 선교 및 전도를 위해 개설중인 <영락한글문화교실>의 부족한 한글교사 양성을 위해 <영락 외국인 대상 한글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4월 9일(토) 제1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양성과정은 12주로, 선교부 교역자를 통한 영성수련 및 한글교육 전문강사의 깊이 있는 한글강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도는 영락한글문화교실의 강사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한글교육을 통한 복음전파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제공 선교부 외국인예배팀

한국 교회 어머니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열려



“한국 교회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28)

5월 20일 오후 3시 본당에서 <한국 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열렸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기도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시급한 관심사인 기독교 사학의 위기와 교육 문제 등에 대

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였다.

1부 개회 예배에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설교를 통해 “학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윤리관과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다”며 “기독교학교에서 채플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위기의 현실을 전했다.

2부 세미나는 ‘우리들의 자녀교육,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3부 기도회에서는 교회 회복을 위한 참회, 공교육과 교육감 선거를 위한 간구,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한 소망의 기도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의 유권자 인식조사’를 발표한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오는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을 잘 세우길 독려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 가정사역 박람회 -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난 5월 8일 어버이·가족주일을 맞아 <영락 가정사역 박람회>가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제로 교육부, 상담부, 교회교육원 주관으로 베다니광장에서 펼쳐졌다. 전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세대별 대상별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부스로 꾸며진 이날 광장 박람회는 교인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부스는 ① 결혼 사역 ② 유니게학교 1단계 조이스쿨 ③ 유니게학교 2단계 주모아스쿨 ④ 유니게학교 3단계 부모코칭 ⑤ 부부학교 ⑥ 부모세움학교 ⑦ 사춘기부모학교 ⑧ 어머니학교 (Mother Wise 어머니의 지혜) ⑨ 아버지 학교 (F.W.I.A= Faith & Work Institute Asia 약자) ⑩ 시보 무 장인장모학교 ⑪ 한마음 가족수련회 ⑫ 가정예배학교



부스 총 12개로 각 부스에 자료 비치와 함께 상담 및 교육 신청을 받으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신청한 교육들은 이후 올해 전·후반기에 걸쳐 향후 폭넓게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김윤근 은퇴장로 별세 … 현충원에 안장

김윤근 은퇴장로가 지난 5월 10일(화)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6년 서울에서 출생한 고인은 일찍이 나라 사랑으로 군인의 길을 걸었고 6.25전쟁 등에서 큰 공적을 세워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63년 해병대 중장으로 전역하여 산업 현장과 교회의 봉사에도 헌신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81년 12월 제16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1996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서무부 부장, 교육1부(소년부) 부장, (재)영락원 이사, 교육부(청년부) 부장, 심방부 부장, (복)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 50주년기념사업회 시설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한 빈소에서 김운성 목사의 집례, 조두형 목사 인도로 5월 12일(목) 오전 5시 발인예배를 드리고 현충원에 안장했다. 유족은 부인 유정열 권사와 1남 3녀를 두었다.

고 김윤근 장로님 영전에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사도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회 없이 값진 인생을 살아 온 자신있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고 김윤근 장로님은 바울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값진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1926년 5월 19일 김창덕 목사님 오현숙 사모 슬하 3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일찌기 나라에 충성을 목표로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1947년 해군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장교 임관된 후 해병대로 전과 6.25전쟁 중에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여, 해병대 보병 대대장으

로 서울 탈환 작전을 위시한 난공불락의 도솔산 김일성 고지 탈환 작전 그리고 원산, 함흥상륙작전 등에서 ‘무적해병’의 신화를 남기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워, 미국 브론즈스타훈장, 미국 실바스타훈장, 은성 을지무공훈장, 은성 충무무공훈장, 금성 을지무공훈장, 중국 운휘공로훈장, 1등 근무공로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61년 5·16혁명 거사 시에는 전방 중요한 거점에서 해병대여단을 지휘 중 혁명 과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후 해병대 중장으로 예편하셨고 1963년~1970년 까지 호남비료 사장직을 수행했으며, 교회 장로로서 교회 각부서 봉사는 물론 교회 50주년 기념사업의 시설 분과 위원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군 선교활동에 있어 1966~1969

년 제6대 한국기독장교회 총회장직을 수행 중 IMF 여파로 어려운 시기에 1967년 7월 17 일~22일까지 세계 7개국, 239명이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 모여 제5차 AMCF (세계기독군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국제 기독군인대회였습니다.

1981년 8월 31일 정부 시책에 따라 한국기독장교회가 강제 해산당하여 모든 회원이 당황하여 갈 길을 모를 때 2주 후인 9월 19일 김윤근 장로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과감한 결의 하에 7명이 모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그때 김윤근 장로님께서 차후 모임 명칭을 ‘고넬료회’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해산 4주 만에 ‘고넬료회’로 다시 뭉치게 되었던 일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4년 7월 19일 한국 기독해병선교회를 창설하셨고 2000년까지 해병선교회 중앙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006년 영락교회 해병선교회를 창설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병대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때때로 전화로 문안드리면 권사님이 먼저 받고 나서 장로님과 대화하면 매우 또렷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부고에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윤근 장로님을 95세까지 지켜주시고 교회 장로로, 나라에 충직한 군인으로, 특히 우리 한국기독장교회 총회장으로,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이 한낱 티끌임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 뜻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이제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벗겨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 품 안에 평안히 쉬고 계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잘 섬기셨던 장로님, 나라 사랑 충성을 다해 신화를 남기신 장로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앞장서시며, 불가능을 용감하게 신앙으로 도전하신 김윤근 장로님을 우리는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김윤근 장로님 !

우리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날에 산 소망이신 주님 앞에서 함께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저의 조사를 갈음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이재규 은퇴장로

영락사회복지재단 소식

2022년 어깨동무 후원자 모집 캠페인



2022년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후원자 모집' 캠페인이 4월 24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김운성 목사님의 권면 말씀처럼 “지금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영락교회 성도들의 성원으로 많은 분이 후원에 가입하였다. 당일 신규 가입 후원자 100명, 기존 후원자 중 증액 후원자 13명, 후원을 중단했다가 재가입하신 분 등 다양한 참여가 있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정성스럽게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가득 채운 저금통을 주고 가신 분도 있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대화섬유] 의류 후원 - 행복을 나누며

2019년부터 꾸준히 티셔츠를 후원하고 있는 대화섬유 박호전 은퇴안수집사는 2022년 4월 20일 1,000장이 넘는 티셔츠를 일이 색상과 사이즈별로 분류하여 후원했다.

박집사는 “내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년 티셔츠를 기증하고 있으며, 함께 준비하는 회사 직원들도 “주면서 행복하고 나누며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기부 받은 의류는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포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원고모집

영락교회 여름수련회, 하기선교봉사, 산상기도회의

추억이 담긴 글이나 사진 모집합니다.

채택되신 분은 「만남」에 게재합니다.

내용 : 글 또는 사진, 보내는 분의 연락처
(휴대폰 번호)

보내실 곳 : youngnak-hb@daum.net

문의 : 홍보출판부 02) 2280-0197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다른그림찾기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돌아온 일상 속의 모습에서 서로 다른 10곳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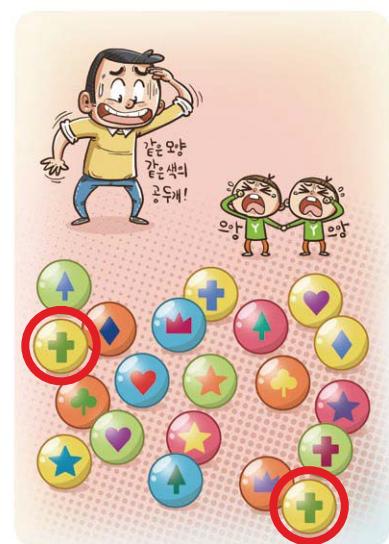
6월 목회력

3일(금)	연합권찰공부 상반기 종강
4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5일(주일)	성령강림주일, 찬양예배 성찬
12일(주일)	제직회
15일(수)~19일(주일)	북한선교대회
17일(금)	심방준비회,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종강
19일(주일)	북한선교주일
24일(금)	구역장대회, 교사부흥회
26일(주일)	새가족환영회, 사회봉사주일
27일(월)~7월 2일(금)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6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같은 공 찾기



2022년 6월호 통권 580호

발 행 2022. 6. 1.

발 행 인 김운성

편집 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
아이폰용

2022 북한선교대회

예수로, 자유로, 하나로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1,8,15일(수)	수요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및 간증	본당
1(수)	수요1,2부	30일 기도카드 배부	본당 외
12일(주일)	오후1시	영락포럼(강동완 교수, 북·중 접경에서 바라본 북한) 50주년소강당	
18일(토)	오전9시	송악기도처 기도회	송악기도처
19일 (북한선교주일)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공동기도문, 홍보영상	본당 및 부속실
	오후5시	찬양예배(이용남 목사), 자유인초청 100명	본당
종일	광장행사 / 사진전: 평양 밖 북한 / 기도카드 작성		베다니광장

※ 교육부 연계 프로그램 (장마당 체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화랑

하나님과 동행



전제범, Acrylic on canvas, 90×75cm, 2021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1)